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장 팔복 서론

『산상설교』 상권 제3장, 인쇄 36~4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12

> ❓ **팔복은 특별히 경건한 몇 사람 얘기일까, 나 같은 평범한 신자의 모습일까? 그리고 그게 그냥 착한 성격이랑 뭐가 다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팔복을 하나씩 풀기 전에 팔복 전체를 먼저 내려다본다. 세부보다 전체를 먼저 봐야 오류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팔복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한 뒤 다섯 원칙을 차례로 세운다.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특징은 한 사람 안에 모두 함께 나타난다.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만드시는 기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근본부터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예 다른 나라, 곧 천국에 속해 있다. 설교는 팔복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처음 보이는 반응으로 자신을 점검하라는 요청으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 — 전체에서 시작하고, 행복의 길을 묻다

로이드 존스는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모습과 특징을 담고 있다고 말하며 시작한다. 복이 일곱인지 여덟인지 아홉인지 세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이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전체에서 출발해 세부로 가야 하고, 세부에서 시작하는 것만큼 이단과 오류로 이끄는 것도 없다고 경고한다. 이어서 산상설교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찾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불행을 부르는 방법을 쓴다. 어려움을 잠깐 피해서 얻는 순간의 행복은 결국 문제를 키운다. 여기에 죄의 기만성이 숨어 있다. 죄는 늘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비참함으로 이끈다. 산상설교는 진짜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한다.

1. 복의 개수보다 팔복 전체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2. 성경 공부는 전체에서 세부로 가야 한다
3. 산상설교의 명령은 팔복의 사람만 실천한다
4.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5. 죄는 행복을 약속하지만 비참함으로 이끈다

> **마태복음 5:3~12**
> 팔복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격을 그린다
>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 **마태복음 5:3**
> “복이 있나니”는 축하받을 만큼 참으로 행복하다는 선언이다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태복음 5:13~7:27**
> 팔복 뒤에 이어지는 명령들이다. 팔복의 성격을 가진 사람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전체보다 세부에서 시작하는 일처럼 이단과 오류로 인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 2. 첫째 원칙 —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팔복은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뛰어난 소수를 묘사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서술이다. 로이드 존스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교회들이 들여온 위험한 경향을 지적한다. 신자를 성직자와 평신도, 특수한 그리스도인과 보통 그리스도인, 신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과 세속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경향이다. 그는 이 구분이 성경적이지 않고, 결국 참된 경건을 무너뜨리며, 여러 면에서 복음을 부정한다고 본다. 물론 성경에도 사도·선지자·교사·목사·전도자 같은 직책의 구별은 있다. 그러나 팔복은 직책이 아니라 성격을 말한다. 성격의 기준에서는 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어떤 사람들을 성인으로 따로 올리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하는 일이지 신약성경이 하는 일이 아니다. 신약 서신의 첫머리를 보면 고린도교회의 모든 신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불린다. 그러므로 팔복은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뮐러, 휫필드, 웨슬리 같은 위인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맞추어야 할 기준이다.

1. 팔복은 소수 엘리트 신자 이야기가 아니다
2. 성직자·평신도 식의 등급 나누기는 비성경적이다
3. 성경의 구별은 직책의 구별이지 성격의 구별이 아니다
4. 신약은 모든 신자를 '성도'라 부른다
5. “나는 그 축에 못 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에베소서 4:11

사도·선지자·목사·교사 같은 직책의 구별은 성경에도 있다

>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마태복음 5:3~12

직책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성격을 서술한다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 3. 둘째 원칙 — 모든 특징이 한 사람 안에 '함께' 나타난다

팔복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야 한다. 누구는 심령이 가난한 쪽, 누구는 애통하는 쪽, 누구는 화평케 하는 쪽을 맡는 식이 아니다. 어떤 신자에게 한 특징이 더 두드러질 수는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다양성이 정당하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인정할 뿐이다. 신자가 마침내 완성되면 모든 특징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팔복을 하나씩 분석하면 각 복이 다른 복을 품고 있다. 애통 없이는 심령의 가난이 없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 없이는 애통도 없다. 그러므로 팔복은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전체다.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도 모든 복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1. 특징을 사람마다 나눠 갖는 것이 아니다

3. 완성의 날에는 모든 특징이 온전해진다
4. 각 복은 다른 복을 서로 요구한다
5. 팔복은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전체다

마태복음 5:3

심령의 가난은 애통과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4

애통은 의를 향한 갈망과 이어져 있다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애통을 낳는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온유는 다른 복들과 함께 있을 때만 참되다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화평케 함도 전체의 일부로만 나타난다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4. 셋째 원칙 —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은혜로 만들어진 기질이다

기질이다. 날 때부터 겸손해 보이거나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과 온유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는 내 친구가 늘 친절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답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이 팔복의 특징을 분명히 모르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답한다. 사람은 자기 기질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는 있어도 결정할 수는 없다. 누구는 싸움을 좋아하고, 누구는 조용하고, 누구는 불같이 빠르고, 누구는 느리다. 그런 선량함은 생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몸매가 다르듯 기질도 다를 뿐,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만약 기질로 그리스도인 여부를 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하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복음은 출신과 기질에 상관없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게 한다. 타고나기를 요한 웨슬리보다 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복을 풀 때 타고난 성질과 섞거나 타고난 말로 정의하지 말고,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1. 팔복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2. 성령이 은혜로 빚으시는 기질이다
3. 착한 불신자의 선량함은 타고난 기질의 문제다
4. 그래서 출신·기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5. 교만했던 웨슬리도 심령이 가난해졌다

> **마태복음 5:3**
> 심령의 가난은 타고난 수줍음이나 소심함과 다르다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태복음 5:5**
>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타고난 순한 성격이 아니다
>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마태복음 5:3~12**
> 모든 복이 은혜로 생기는 기질에 대한 서술이다

>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복음은 천성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5. 넷째 원칙 —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근본부터 다르다

팔복은 성경 어느 곳보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 준다. 로이드 존스는 당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차이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경계가 흐려졌다. 반대로 이 차이가 분명했던 때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깥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곧 세상과 비슷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한 군목을 예로 든다. 그 군목은 병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어울리면 전쟁 뒤 퇴역 군인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가 복음의 영광으로 세상과 확연히 다를 때에만 세상은 처음에는 미워하더라도 결국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부흥이 온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진다. 차이는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먼저 기뻐하는 대상이 다르다. 헬라 철학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사내답지 못한 약골로 여긴다. 세상은 자기 확신과 자기표현을 믿고, 신문에 나오는 동경의 대상은 팔복과 정반대다. 다음으로 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부와 지위와 명성이 아니라 의,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주린다. 또 사는 목적이 다르다. 비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라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로 본다. 베드로전서 2장의 논리도 같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나그네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능력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신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계를 사실대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2. 세상을 닮아서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
3.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세상과 달라진다
4. 기뻐하는 것·구하는 것·사는 목적이 다르다
5.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3

세상이 멸시하는 심령의 가난을 그리스도인은 사모한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그리스도인이 주리는 것은 부·명성이 아니라 의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베드로전서 2:9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다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11~12

그 정체성 때문에 나그네처럼 다르게 살아야 한다

>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비기독교인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 6. 다섯째 원칙 — 두 세계, 천국의 세 얼굴

마지막 원칙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전혀 다른 두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첫째 복과 여덟째 복에는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 주님은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맺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신다. 로이드 존스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차이를 알 수 없다고 답한다.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쓴 것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였다. 그들의 물질적·군사적 메시아 왕국 관념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천국은 땅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나라이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천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님이 땅에 계셔서 권세를 행사하신 곳에 천국이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이 그 예다.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도 하셨다. 둘째, 천국은 지금 모든 참 신자 안에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나라를 교회와 같은 것으로 보지만 옳지 않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참 신자와 아닌 사람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 속에만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 셋째, 천국은 장차 완성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악과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며,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것이다. 천국은 이미 임했고, 지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전히 임할 것이다.

1.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난다
2.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다
3. 천국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통치다
4. 천국은 교회 조직과 같은 것이 아니다
5. 이미 임했고, 지금 임하며, 장차 완성된다

> **마태복음 5:3, 5:10**
> 첫째와 마지막 복에 같은 약속, 천국이 붙어 있다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12:28

그리스도가 권세를 행사하신 곳에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21

나라는 여기저기 물질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골로새서 1:13

신자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빌립보서 3:20

신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계시록 11:15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미래의 완성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베드로후서 3:13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빌립보서 2:10~11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는 최종 통치다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7. 맺음 — 팔복 앞에서 내 마음의 첫 반응

로이드 존스는 서론을 마치며 청중에게 묻는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본질상 얼마나 다른지 보았는가? 나는 천국에 속해 있는가?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이신가? 매일의 삶에 이 자질들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가? 나는 정말 복되고, 채워졌고, 평안한가? 그는 팔복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드러낸다고 말한다. 팔복이 거칠고 가혹하게 느껴지거나,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그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표시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다.

1. 팔복에 대한 첫 반응이 나를 드러낸다
2. 팔복이 싫다면 아직 생명이 없는 것이다
3. 부족해도 그렇게 되고 싶은 소원이 생명의 증거다
4.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복되다 하신 사람이다

에베소서 2:1

팔복을 원하지 않는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태복음 5:3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복되다 하신 사람뿐이다

> **골로새서 1:13**
>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아들의 나라 시민이다
>
>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팔복
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께서 “복이 있나니”로 선언하신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격을 그린다.

생래적(生來的) 기질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격이다. 다스릴 수는 있어도 스스로 정할 수는 없다.

은혜로 산출된 기질
타고난 성격과 상관없이 성령이 새로 빚어 주시는 마음의 성향이다.

성직자·평신도 이원론
신자를 '특별한 신자'와 '보통 신자'로 나누어 높은 삶을 소수에게만 돌리는 생각이다.

세속화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다.

천국(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이자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혼합 대중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부흥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팔복은 소수 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모습이다.
- 여덟 특징은 쪼갤 수 없는 하나이며, 한 사람 안에 함께 자라야 한다.
- 팔복은 타고난 착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만드는 기질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근본부터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
- 부족해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